

# 기아·현대 1t 트럭 불황 타고 씩씩~



저유가·푸드트럭 허용 등  
규제완화에 수요 꾸준히 증가  
기아 '봉고' 지난해 6만1863대  
현대 '포터' 9만9743대 판매 '최고'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에서 트럭을 이용해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는 정모(36)씨는 올해 초 큰 맘먹고 1t트럭 봉고를 샀다. 정씨는 "장사도 어느정도 되고 물건을 때로 공판장에 가야하고 노점상의 특성상 이곳저곳으로 이동해야만 하기 때문에 새 차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최근 소형 트럭도 경상용차(작은 차량 중 상업용으로 쓰이는 차량)보다는 1t트럭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저유가에 소형 트럭이라도 연비가 뛰어난 경상용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1t트럭의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1t트럭의 대명사인 기아차의 '봉고' 판매량이 ▲2012년 4만7946대 ▲2013년 5만1428대 ▲2014년 5만5107대 ▲2015년 6만1863대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봉고는 올 1월 4847대 판매된 데 이어 2월에는 4165대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지난해(1월 4982대, 2월 4096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대차의 1t트럭 '포터' 역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포터는 ▲2012년 8만7308

대 ▲2013년 9만2029대 ▲2014년 9만5698대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지난해에는 9만9743대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올 들어서도 포터는 안정적인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1월에는 8632대, 2월에는 7098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1월 8860대, 2월 6873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대표적인 생계형 차종으로 꼽히는 한국GM의 경상용차 '라보'와 '다마스' 판매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이들 두 차종의 판매량을 합산하면 ▲2010년 1만3264대 ▲2011년 1만3008대 ▲2012년 1만3908대 ▲2013년 2만662대에 달했다. 하지만 판매량이 지난 2014년 7277대로 크게 줄어든 뒤 지난해에도 1만1980대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판매량이 ▲1월 758대 ▲2월 858대 등 누적 기준 1616대로 지난해 1~2월 누적 판매량(1938대)보다 줄어들었다. 이처럼 경상용차보다 1t트럭의 판매량이 더 늘고 있는 데는 저유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최근 푸드트럭 등 노점상 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자 개량이 용이한 소형 트럭의 수요가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 따르면 자동차용 경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2013년 1729.6원, 2014년 1636.7원에서 지난해 1299.6원으로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1월 1157.3원, 2월 1101.1원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LPG 역시 2013년 1070.8원, 2014년 1051.2원, 지난해 806.4원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경유의 낙폭이 더 큰 양상이다. 포터는 디젤차량이고 봉고는 디젤·LPG, 라보와 다마스는 LPG 차량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사는 차인만큼 기름값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에는 생계형 트럭이라 하더라도 연비보다는 상대적으로 용량을 고려하는 만큼 1t트럭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유가에 힘입어 경상용차보다는 1t트럭 등 보다 큰 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효성 조석래 회장 등 사내이사 4명 재선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 3남 조현상 부사장 등 총수 일가와 이상은 부회장이 효성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효성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제6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선임안과 재무제표 승인,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은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으며, 이사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100억 원으로 동결했다. 이 날 이상은 부회장은 "올해는 효성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시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면밀히 살피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고객가치를 높이는 회사로 인정받겠다"며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고객,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힘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효성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 12조4585억원, 영업이익 9502억원으로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 중소 89% "도입 반대"

정부가 연내에 도입할 방침인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89%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9.0%가 반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고용부담금이란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일정 금액을 정부에 내도록 하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중소기업들은 "업체의 비용부담 증가"(67.8%)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연합뉴스

## 한전, 세계 최대 초전도 전력기술 실증

### 154kV 600MVA 설비 제주서 7개월간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8일 오전 제주(한림읍) 금악변환소에서 세계 최대 송전용량 초전도케이블 시스템을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실증을 개시하는 '초전도 전력기기 신사업화 출정식'을 가졌다. 출정식에는 조환익 한전 사장을 비롯해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김방훈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중국 국가전망, 일본 동경전력 등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 그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초전도 전력기술이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짐을 함치기 했다. 이번 실증은 154kV 600MVA 초전도케이블 전력설비는 세계 최대 송전용량으로서 금악변환소와 한림변전소간 실제 1km 연계되어 올해 10월까지 7개월간의 실증을 거쳐 예정이다. 실증이 완료되면 한전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롱아일랜드 138kV 574MVA 초전도케이블을 뛰어 넘는 세계 최고의 초전도 케이블 기술을 보유하게 되며, 초전도 전력기기 기술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전은 올해를 '초전도 전력기술 상용화의 원년'으로 삼고 실증을 끝낸 AC 23kV 초전도 전력케이블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 주도로 추진중인 AC 23kV 초전도 전력케이블의 상용화 사업은 154kV 신갈변전소와 흥덕변전소의 23kV 1km 구간을 초전도 전력케이블을 연결해 변전소간 부하공급능력을 공유함으로써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한전은 초전도 전력케이블 시장의 본격적인 형성을 유도하고 초전도 기술 발전의 마중물 역할과 함께 차세대 송·배전 시스템 기술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봄날의 추억 흘날린 '보해 땅끝 매화축제'

### 매실농원 이틀간 2만여명 찾아

땅끝마을 해남에서 핀 향긋한 매화 향기가 상춘객들에게 완연한 봄날의 추억을 남겼다. 보해양조주(대표이사 임지선)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해남 보해 매실농원에서 열린 '땅끝매화 축제 <사진>'가 2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성료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땅끝매화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해매실농원에서 매년 매화꽃 만개 시기에 펼쳐지는 해남의 봄철 대표축제로 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보해양조주는 축제 방문객들에게 매화축제에서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지역 사진동호회와 연계, 사진 촬영 이벤트를 전개하여 이목을 끌었다. 이번 이벤트는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보해양조주 인스타그램을 통한 사전 사전 공모로 진행되었으며, 가족, 연인, 친구 등과 기념 촬영을 원하는 많은 네티즌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이들 중 특별한 사연을 가진 총 8개팀을 선발하여 매화가 만발한 매화터널에서 기념 촬영을 진행했으며, 촬영 사진은 보정과 액자 작업까지 거쳐 참여자들에게 배송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로또복권 (제69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7	15	20	25	33	43	1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555,036,388		1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3,227,274		78		
3	5개 숫자 일치	1,133,739		2,286		
4	4개 숫자 일치	50,000		102,474		
5	3개 숫자 일치	5,000		1,581,822		

現)BLVD HOTEL 서울 영등포 로터리 신축 호텔

매매 교환

15층 81실 임대완료(성업중)  
보증금 10억, 월세 7500만원

- 시행사 직접매매
- 매매가 165억원(조정가)
- 교환가능(토지, 건물 등)
- 직영가능

담당자 : 조승정 상무 010-7624-8822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 방지에는 스틸 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가지 않는 물새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고인 단열방수 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샐틈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 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1599-7652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